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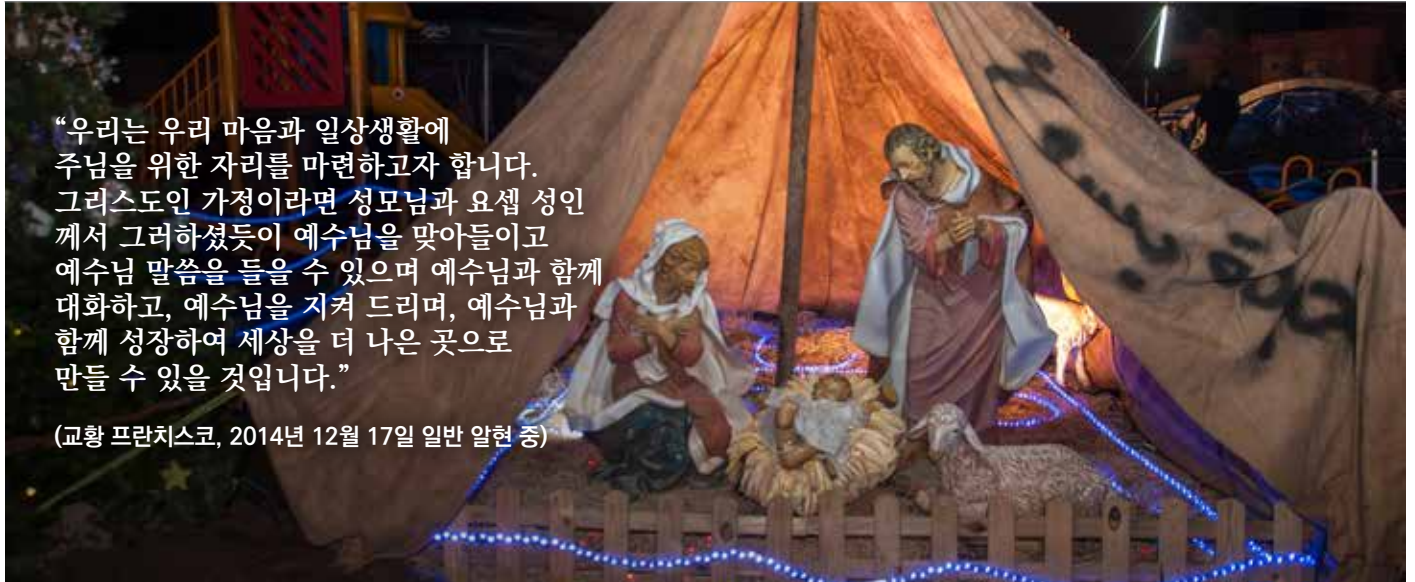


발행: 사단법인 에이드투더처치인니드코리아 | 전화: 02-796-6440 | 이메일: info@churchinneed.or.kr
주소: 041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67, 8층 (신수동, 대승빌딩) | 홈페이지: www.churchinneed.or.kr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1-121620 | 예금주: (사)에이드투더처치인니드코리아

2017년도 제8호 · 12월 발행

“우리는 우리 마음과 일상생활에
주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이라면 성모님과 요셉 성인
께서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예수님을 지켜 드리며, 예수님과
함께 성장하여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2014년 12월 17일 일반 allocution 중)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70년 전에 베렌프리트 신부님은 전쟁 난민들이 겪는 가혹한 고난이 마치 ‘그리스도의 수난’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분이 성탄에 관해 남기신 유명한 저술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우리는 2017년 대림 시기와 성탄 축제도 “여관에는 예수님을 맞이할 자리가 아직도 없다”라는 주제로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아시아 지역에서 지난 6년 동안 전쟁과 집단 학살이 지속하면서 이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테러리즘이 전 세계적으로 퍼졌고,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해결책도 난망한 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처럼 암울한 시기를 보내는 동안에도 성탄을 맞이합니다. 아니, 바로 시국이 이처럼 암울하기에 우리는 빛의 축제를 지내야 합니다. 예수님과 성모님, 그리고 요셉 성인이 바로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새롭게 느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과 요셉 성인은 그저 마구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머물 곳을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마침내 마구간을 찾았고 이로써 하느님께서 이 땅에 강생하시게 되었습니다.

성탄은 ‘사람 되심’의 축제입니다. 하느님께

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기적을 다시금 일으키기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의 믿음을, 생명을 이루어 내는 믿음을 바라십니다. 성모님과 요셉 성인의 믿음은 그 본보기입니다. 요셉 성인은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고 그 기도로써 하느님의 계획을 이해하고자 했으며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요셉 성인이 보잘것없는 ‘목수’로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일을 우리는 그저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고작 구유에



우리 모두 요셉 성인처럼
‘하느님의 일꾼’이 되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깁시다

누어야 했을 때, 2년 동안 낯선 집에서 살아야 했을 때, 그리고 이집트로 피신해야 했을 때(마태 2,11-16 참조) 요셉 성인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요셉 성인은 이 역경과 멸시와 가혹한 운명을 참아 냈고 하느님께 자리를 내어 드리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극복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강한 인내심이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 성인의 믿음은 성자 예수님의 생명을 구해 내는 믿음이었습니다. 요셉 성인은 지금도 ‘인간적인’ 성인이었습니다. 그분은 아내와 아들을 보호했고 염려했으며 가족을 위해 일했습

니다. 요셉 성인은 아내와 아들을 돌도 없이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요셉 성인이 하느님을 믿었던 것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들에 흔들리지 말고 ‘성탄의 사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요셉 성인처럼 ‘하느님의 일꾼’이 됩시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깁시다. 오늘날 서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요셉 성인처럼 오랫동안 머물 곳을 찾지 못하고, 그나마 머물고 있었던 곳에서마저 추방당한 채 불안한 나날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제 이 이들이 고향에서 보금자리를 꾸릴 수 있도록 우리가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할 때입니다. 이들은 요셉 성인이 그러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도와주기를, 못쓰게 된 땅과 무너진 교회들, 수도원들을 재건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 그곳에서 예수님 강생을 증거하고 사랑과 화해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모두 은총 가득한 성탄과 복된 새해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르틴 바르타 신부
ACN 지도신부



ACN 70주년 심포지엄 중

ACN 한국지부는 올해 가톨릭평화신문과 함께 ‘고통받는 교회를 도읍시다’ 캠페인을 진행하며 파키스탄, 레바논, 우간다를 방문했습니다. 이 세 기행을 아우르는 내용과 더불어 차별받고 박해받는 세계의 가난한 교회와 연대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에 관하여 심포지엄을 주최하며 파키스탄의 세바스찬 쇼 대주교(라호르대교구장), 레바논의 레이몬드 아브도 신부(땀발의 가르멜회 관구장)와 우간다의 앤 크리스틴 키자 수녀(티엠티의 마리아 성심 수녀회 총원장)를 지난 11월 말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에 초청했습니다.



CPBC 특별대담 ‘고통받는 교회를 위하여’

가톨릭평화방송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획한 특별대담 ‘고통받는 교회를 위하여’의 촬영이 11월 30일에 진행되었습니다. ACN 70주년 심포지엄을 위해 파키스탄, 레바논, 우간다에서 방한한 세 분의 손님과 요하네스 클라우자 ACN 한국지부장이 차별과 박해, 가난에 신음하는 교회의 모습을 나누기 위해 대담을 나누었습니다. 사회는 ACN 한국지부 이사 주원준 박사(한남성서연구소 수석연구원)가 맡았으며 방영 시기는 2018년 1월로,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7시, 서울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가 봉헌됩니다. 지난 11월의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는 ‘세계의 고통받는 교회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ACN이 함께하였습니다. 미사는 ACN 한국지부 이사 유경춘 주교(서울대교구 사회사목담당 교구장대리)의 주례로 세바스찬 쇼 대주교와 사제단의 공동집전으로 봉헌했습니다.



절두산 순교성지 방문, 미사 봉헌 및 기자 회견

ACN 한국지부는 12월 1일 서울 절두산 순교성지를 방문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가난과 차별, 박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의 실상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기자 회견에서 절두산 순교성지(주임: 원종현 신부)는 ACN에 성금 3천만 원을 전달했는데, 이로써 지난 2년간 총 3억 7590만 원을 전 세계 형제자매에게 지원했습니다. 또한, ACN은 절두산 성지의 도움으로 내년 봄부터 순례자 식당을 세계의 고통받는 교회에 대해 알리는 전시 공간으로 꾸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형제자매들과 고통받는 교회를 향한 연대의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중교구장 유수일 주교와 함께 DMZ 방문, JSA 성당에서 미사 봉헌

ACN 70주년 기념 심포지엄

‘어제를 만나다 - 고통의 땅을 찾아서’

‘어제를 만나다-고통의 땅을 찾아서’를 주제로 ACN 창립 70주년을 맞아 12월 2일 서울 명동대성당 교스트홀에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심포지엄은 파키스탄, 우간다, 레바논에서 방한한 세 분과 ACN 한국지부 이사 한홍순 교수(전 주교황청 한국대사)의 발표로 구성되었으며 주원준 박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ACN 한국지부 이사장 염수정 추기경(서울대교구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의 어려운 교회를 돕는 ACN 활동에 한국교회 신자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진 제공: 이강덕 시메온



서울대교구 화곡본동성당 방문, 정영정 주임신부와 함께 주일미사 봉헌



침묵의 증인: 파괴된 성물 전시



업무 협약서를 들고 있는 리데만 대표와 가톨릭평화방송 김은수 업무총괄이사

CRTN, 가톨릭평화방송과 업무 협약 체결

ACN 산하 가톨릭 라디오 TV 네트워크(CRTN)의 마크 폰 리데만 대표와 데이비드 존스가 가톨릭평화방송과의 TV 콘텐츠 제휴를 위해 지난달 방한하였습니다. 업무 협약 체결은 11월 29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가톨릭평화방송 본사에서 이루어졌으며, 리데만 대표는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함께 걸어나갑시다.”라며 양사의 협력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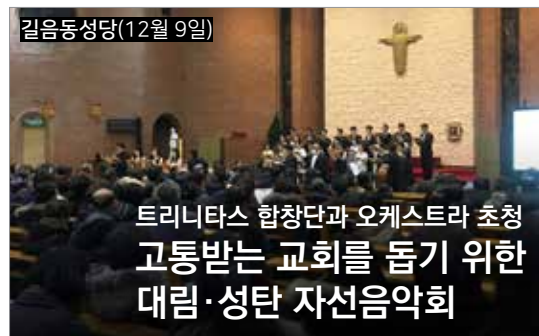
필립 오조레스 ACN 사무총장 방한

ACN의 필립 오조레스 사무총장이 한국지부 심포지엄 참석 및 내부 워크숍을 위해 3일간의 일정으로 12월 초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오조레스 사무총장은 파키스탄, 레바논, 우간다, 세 명의 초청단과 일정을 함께하며 “한국 후원자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에 깊이 감명 받았습니다.”라고 방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서울대교구 도곡동성당 방문

ACN은 12월 9일과 10일 서울 도곡동성당을 방문하여 미사에 참례하고 ACN에 대해 소개하는 모금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양일 미사에서는 전 세계에서 전쟁과 차별, 박해, 가난 등으로 고통받는 교회 공동체와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2차 헌금이 봉헌되었습니다. 파스하게 맞이해 주신 임병현 주임신부님(ACN 한국지부 지도신부)과 황병철 보좌신부님, 특히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 주신 도곡동본당 교우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길음동성당(12월 9일)

트리니타스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초청 고통받는 교회를 돕기 위한 대림·성탄 자선음악회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시기를 맞아 ‘고통받는 교회를 돕기 위한 대림·성탄 자선음악회’가 서울대교구 길음동성당, 대치2동성당 그리고 가회동성당에서 12월 9일, 14일, 16일 저녁에 각각 열렸습니다. 세계의 고통받는 교회와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이 자리에 환영해 주신 주호식 신부님(길음동본당 주임), 차원석 신부님(대치2동본당 주임), 이승태 신부님(가회동본당 주임)과 전 세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후원과 사랑을 전해 주신 모든 본당 교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와 캐럴의 아름다운 음악을 선물해 주신 트리니타스 합창단(신호철 단장)과 트리니타스 챔버 오케스트라(정중섭 단장)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치2동성당(12월 14일)



절두산 순교성지 방문, 자선 주일 미사 봉헌

ACN은 12월 16일 그리고 17일 자선 주일에 절두산 순교성지에서 미사에 참례하며 성지를 찾은 순례객을 직접 만나고 ACN을 알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라크 카라코시의 시리아 가톨릭교회에서 전달한 ‘총알에 맞은 성직’으로 미사가 봉헌되기도 했습니다. “고통받는 교회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끊임없이 지원해 주시는 원종현 주임신부님과 절두산 성지 관계자 그리고 순례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가회동성당(12월 16일)



고통받는 교회를 위한 성탄 선물



제르넬루 신부 덕분에 이미 여러 가정에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되어 있다.

1일 6천 원, 아이티에 하루 동안 빛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아이티에는 자연재해가 잦습니다. 7년 전 지진으로 아직도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2016년에는 허리케인 ‘매튜’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삼시간에 길이 끊어지고 전봇대가 무너졌으며 국가 인프라가 문자 그대로 땅바닥까지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전력 부족 문제입니다. 전기가 없으면 신자들은 어두울 때 교리 교사나 사제를 만날 수 없으며 미사를 봉헌하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젊은이들을 위한 대화나 놀이도 불가능합니다. 아이티 중동부 **앵슈 교구** 성 베네딕토 성당의 제르넬루 신부는 “전기가 없으니 해가 지고 나면 우리 성당은 그냥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합니다. 성 베네딕토 성당은 아무런 기반 없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제반 시설을 갖추려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이에 제르넬루 신부는 자연의 힘인 태양을 활용할 생각입니다. 성당 지붕에 태양광 집광판을 설치해 에너지를 생산하면 도시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은 환경에서도 불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일입니다. **하루에 5유로(약 6천 원)**, 제르넬루 신부가 언제든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걱정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성 베네딕토 성당에 빛을 선물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시리아 다마스쿠스 성 시릴 본당 아이들에게 전해진 성탄 꾸러미 (2015)

3만 원, 시리아 알레포의 아이들에게 성탄 선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시리아 알레포에 사는 아이들이 갖고 싶은 것은 과일, 그림책, 공, 튼튼한 신발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것들은 물론 생필품도 없이 지내야 했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들이 장난감과 책, 케이크가 담긴 성탄 선물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이미 작년부터 알레포의 아이들은 **ACN** 후원자 여러분으로부터 성탄 선물 꾸러미를 받았습니. 시리아의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혼자 아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레포의 아이들에게 성탄 선물을 보내는 데에는 **한 꾸러미에 25유로(약 3만 원)**가 필요합니다. 이 꾸러미에는 물질적인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아이들과 그 가족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이 기억을 오래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대나무로 지은 임시 성전에서 수녀들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모습

18만 원, 방글라데시 신자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몹시 가난한 나라이지만, 이 가운데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했지만, 일용직 노동자나 청소부 등으로 일하며 힘겹게 살아갑니다. 방글라데시 중서부 **라즈샤히**에는 수백만 명이 착한 목자 본당에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착한 목자 본당은 라즈샤히 시의 콜림노고르 지역에 초등학교와 한부모 가정을 위한 보육 센터를 열었고, 수녀들이 이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가느다란 대나무로 벽을 세운 임시 성전에서 미사를 봉헌하는데,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며 심지어는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곳 공동체는 빠르게 성장하는 중입니다. 이에 수녀들은 아이들과 젊은이들을 돌보는 장소와 교리를 가르치고 성가를 연습하며 신앙을 공부하는 시간은 어떻게 마련할지 등을 고민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금자리가 필요합니다. 사목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목 센터도 있어야 하고 주님께서 사시는 집, 즉 성당도 필요합니다. 이 지역 신자들은 감실 앞에서 기도하고 노래하며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착한 목자 본당에서 **ACN**으로 설계도를 함께 보내며 성전 건립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새 성전은 31평 규모이며 건축 비용은 정확히 19,067유로(약 2300만 원)가 들 예정입니다. 그중 4천 유로(약 500만 원)는 이곳 신자들이 직접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0.3평에 144유로(약 18만 원)**를 보태면 성당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신자들에게 0.3평의 보금자리를 선물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민음의 뿌리로 돌아가는 길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삽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1970년에 “믿음은 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과 약속입니다. 믿음이란 신앙의 영혼에서 우리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요 사람들에게 미래를 약속하는 하느님의 존재를 확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서술한 바 있습니다.

이라크 니네베 평원의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약속을 알기 때문에 활력이 넘칩니다. 이들은 믿음에 뿌리를 두고 미래를 바라봅니다. 올리브 나무가 그 상징입니다. 카라코시와 바르텔라 마을로 돌아온 554가구의 주민들은 저마다 자그마한 올리브 나무를 한 그루씩 손에 들었습니다. 아직 마을의 일부 가옥만 재건되었지만, 주민들은 축일 행렬 때 이 나무를 옮겨 심었습니다. ‘뿌리로의 귀환’은 이들에게 어느 특정한 장소로 돌아가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한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화해로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올리브 나무가 이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미사 중에 주교가 올리브 나무를 축복하며 이를 봉헌한 가정의 이름을 크게 불렀습니다. 사실 가옥 재건은 그저 시작에 불과한 일입니다. 영혼을 재건하는 일, 마음속에 남은 양금을 없애는 일, 증오와 근심 또한 없애는 일, 이웃과 화해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뿌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향한 희망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추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이라크의 신자들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채 단지 생존만을 걱정해야 했던 난민 생활 당시 ACN은 이들에게 먹을 것과 머물 곳, 의약품 등을 지원했고 이로써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비와 연대, 원조 등이 이들에게 삶을 이어 나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은 이러한 것들이 일용할 양식만큼 소중한다고 말했습니다. 텔레스코브 마을의 목주기도의 성모 수녀원에서 활동하는 도미니코회 수녀는 이것이 또한 “저희에게 잘못

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라는 주님의 기도와도 일맥상통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ACN의 도움을 받아 수녀들은 무너진 수녀원을 재건하고자 합니다. ACN은 **4만 유로(약 4960만 원)**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또 다른 수녀원에는 **5만 유로(약 6200만 원)**를 약속했습니다. 루마 수녀는 “이곳에 사는 여러 가족이 우리의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다.”라고 전하며 박해와 피난, 수녀원 파괴 등 지난 한 해 동안 자신들이 겪었던 일에 대해서 더는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지난해에만 이곳의 수녀 70명 가운데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수녀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니네베 평원의 세 지역 교회가 ACN과 힘을 합쳐서 파괴된 마을을 재건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가옥 13,000채와 성당, 마을 회관, 학교, 응급 의료 시설 등을 재건하는 것이 바로 니네베 재건 위원회(NRC)의 목표입니다. 집 한 채를 다시 짓는 데 2천 유로(약 250만 원)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총 650채를 재건**하여 주민들이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ACN이 지난 10년 동안 추진한 가장 큰 규모의 지원 및 재건 사업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니네베 평원의 형제자매들을 박해하고 집을 불태웠으며 나무를 베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나무를 베어도 뿌리는 남아 있듯이 이곳에는 믿음의 뿌리, 즉 하느님에 대한 신앙의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니네베 평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카라코시의 자올라 신부



역사와 미래, 신앙의 얼굴들
재건은 마음속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한 방울의 자비

시리아 내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어난 가장 참혹한 재난 가운데 하나입니다. 35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500만 명이 외국으로 떠나야 했으며 600만 명은 자국에서 잔악한 무리에게 이리저리 쫓겨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만 1,159명의 어린이가 폭탄 테러로 숨졌습니다. 아이들의 죽음은 가족들의 삶을 삼시간에 파괴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생길 때마다 그들은 아주 보잘것없는 미래마저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서서히 찾아오는 죽음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더 피난할 수도 없을 만큼 극한의 위급 상황에 놓이게 되면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들은 영양실조로 사망하고 맙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한 방울의 우유’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한 방울의 우유’ 사업은 알레포에서 시작했습니다. 알레포 인구의 80%는 난민이며 남아 있는 주민들 가운데 대다수는 여러 원조단체가 지급한 생필품에 의존해 생계를 꾸려 갑니다. 생필품 꾸러미 안에는 아주 다양한 물건이 들어 있지만, 어린이가 먹을 수 있는 우유가 포함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사업의 목표는 10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영양가 높은 우유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에는 알레포뿐만 아니라 시리아의 다른 지역도 해당합니다. 이 사업의 지원을 시작하면서 만 1세부터 10세에 이르는 어린이 2,600명이 분유를 먹을 수 있게 되었고, 만 1세 미만의 영아에게도 적절한 우유 제품이 제공되었습니다. 이 우유는 단지 비타민과 같은 영양분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우유 한 방울은 곧 ‘자비의 한 방울’입니다. 이것은 많은 어머니의 영혼에도 자양분이 되어 줍니다. 시리아의 아이들이 이 땅에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는 희망을 키워 주는 것입니다. 우유 배급은 종교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만큼 시리아 곳곳에서 실시합니다. ‘한 방울의 우유’ 사업 책임자인 나빌 안타키 의사는 사업의 성격이 초교과적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을 하나로 이어 줍니다.”라고 ‘푸른 마리스트’에 기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유를 저장하고 조달하고 배급하는 데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매달 총 16,800유로(약 2천만 원)**가 드는 이 사업에 우유 한 방울을 보태 주실 분을 찾습니다.

시리아에서 원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여름에는 찌는 듯한 더위와 싸워야 하고 겨울에는 매서운 추위를 견뎌야 합니다. 지금 같은 계절에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바람이 망가진 벽을 뚫고 들어옵니다. 전열기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발전기를 돌리기에 기름과 가스가 모자랍니다. 전기는 제한된 시간에만 들어

어린 동생이 먹을 우유를 기다리는 것은 알레포 어린이들의 일상이다

© REUTERS/Osman Orsal

오는 데다 비쌉니다. 그래서 이곳에서의 추위는 곧 질병을 뜻하며, 질병이 생기게 되면 의약품이 필요해집니다. 사전에 난방비를 더 많이 마련하는 편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일할 수 있고 무너진 것을 복구할 수 있으며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 동안 우리는 수많은 난민과 실항민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분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이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발전기를 단 몇 시간 만이라도 돌려야 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겨울철 난방비를 기부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 기름 10당 2500원
- 전기 요금 5만 원
- 발전기 구입 비용 13만 원



가을에는 이불이라도 도움이 되지만, 겨울에는 그마저도 소용없다



한 달 동안 먹을 분유를 받은 아이들이 크게 기뻐하고 있다



주님의 포도밭을 달립니다

아프리카는 끝없이 광활하며 풍부한 색채를 품고 있는 대륙입니다. 이곳에는 강한 빗줄기, 마치 땅덩어리를 쪼개 놓은 듯이 가파른 산악, 못사람을 절망케 하는 사막, 단순하고 소박한 신앙, 신에 대한 깊은 믿음, 운명에 순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갖은 전쟁에도 불구하고 결코 희망이 없는 대륙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자연과 싸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언제나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자연환경과 관련된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새로운 방법은 바로 오토바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라위 데자 교구 승리의 모후 성당의 줄리아노 신부에게 오토바이는 일종의 구원입니다. 낡은 자전거만 타던 시절에는 20km 떨어진 외부 활동 지역에 도착하면 녹초가 되기 일쑤였고 더위 때문에 온몸이 땀으로 젖어 버릴 때도 많았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진창에 빠지거나 바퀴에 구멍이 나서, 또는 이동을 중지해야 하는 일이 생겨서 약속 시각에 늦는 일마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줄리아노 신부는 서신을 통해 “이런 일들은 제 일을 단지 방해하는 수준을 넘었습니다. 아예 사목 활동을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저의 신앙이 서품받은 지 1년 만에 가혹한 시험에 든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라며 과거의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토바이 덕분에 같은 시간 동안 두 배로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에너지도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고통에 더 많이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매력은 도마시 교구 그리스도 왕 성당의 스티븐 신부도 확실히 사로잡았습니다. 스티븐 신부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오토바이 덕분에 산이든 언덕이든 오를 수 있습니다. 산속 작은 마을의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전에는 세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한 시간에 불과합니다. 또한, 주일에는 미사 한

대도 베풀지만, 이제는 두 대를 봉헌할 수 있습니다. 마을에서 사망한 그리스도인들의 장례도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이 없을 때도 말이지요. 요즘 저는 신자들의 성경 공부 시간도 마련하고 연세 드신 분과 편찮으신 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성사를 집전하고 함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 오토바이가 영성 생활과 복음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말라위와 잠비아에서 활동하는 다른 여러 사제들의 생각이나 느낌도 이 두 신부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두 곳에서 현재 오토바이 50대를 갖출 재원을 마련했고, 대량 구매를 한 덕분에 40% 할인된 가격을 적용받았습니다. 자동차는 사는 데도, 수리하는 데도 돈이 훨씬 많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와 달리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물론 넓은 지역을 운전할 수 있어서 끝없이 펼쳐진 평원에서 이동하는 데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라위, 잠비아, 모잠비크, 우간다 등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에서는 오토바이가 해당입니다. ACN은 지금까지 10만 유로(약 1억 2400만 원)를 지원하여 이 지역에 오토바이 100대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일부는 이미 보내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줄리아노 신부의 말을 꼭 인용해야겠습니다. “모든 게 다 잘됐습니다. 이 오토바이는 우리 주 예수님의 포도밭을 달리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안티오키아 교구 맨발의 가르멜회 봉쇄수녀원의 수녀들에게 수도원 경당은 기도의 소명을 받은 삶을 더욱 굳건하게 사는 공간입니다. 이에 이곳 수녀들은 경당 건축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여러분께서 믿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는 이곳에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당을 세우고 축성한 것은 수녀들에게 기적과 같습니다. 알마 로페즈 리오스 수녀가 “우리는 ACN 대가

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우리가 ACN으로부터 영적, 물질적인 지원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 역시 매일 이곳 감실 앞에서 바치는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선교 사명에 협력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국제 ACN 대표
요하네스 헤르만
폰 쥐트비크

Johannes Freiherr
Heereman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올해도 우리는 난민 위기 속에서 성탄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위기입니다. 교황청 재단으로서 ACN의 위치는 확고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고향에서 교회가 겪고 있는 고통을 덜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를 바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들은 난민이 되어 고향을 떠나야만 했고, 이 가운데 많은 이들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그들이 집과 성당과 수도원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후원자 여러분의 사랑으로 ACN은 지금까지 수백 곳의 폐허를 복구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일하며 기도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독일 가톨릭 성가집 <Gotteslob> 505번은 “우리는 이 땅의 손님일 뿐”이라는 가사로 시작합니다. 즉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이 땅 역시 천상의 집으로 향해 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숙소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땅은 하느님을 증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땅은 하느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이 ‘숙소’와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화해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활동 역시 이를 표방합니다. 여러분께서 보내 주시는 후원 덕분에 우리가 일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된 성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후원, 사랑 그리고 감사를 전하는 편지

축복과 축하

지난 70년 동안 ACN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성공을 거둔 것을 축하합니다! <사랑의 메아리>에 소개된 큰 성과들, 슬픈 일과 긍정적인 일들에 늘 관심을 두고 읽고 있습니다. 때로는 위험한 상황까지도 감수하시는 분들, 신부님과 수도자들과 축복과 축하를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신학생들에 관한 이야기는 제 마음을 밝혀 주고 저에게 용기를 줍니다. 이 신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금을 보냅니다.

호주에서 한 수녀

처음부터 함께했습니다

제가 ACN의 활동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베네프리트 신부님의 저서 <하느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곳>이라는 책을 처음 읽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신부님께서는 미사를 집전하시고 나서 저에게 직접 사인을 해 주셨지요. 하얀 수도복을 입으

신 신부님의 인상 깊은 모습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박해받는 교회와 박해받는 형제자매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한 여성 후원자

용기 있는 믿음

교회의 힘인 고귀하고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이들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또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에서 한 남성 후원자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고통받는 저의 형제들을 돕고자 합니다.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캐나다에서 한 여성 후원자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전화: 02-796-6440 | 이메일: info@churchinneed.or.kr
주소: 041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67, 8층 (신수동, 대승빌딩)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1-121620 (사)에이드투더처치인니드코리아

<사랑의 메아리 2017년도 제8호>

발행: 사단법인 에이드투더처치인니드코리아 | 번역: 조원형 | 편집: 이재원, 유영훈

Original German Edition | Responsible Publisher: ACN International | Editor-in-chief: Jürgen Liminski



고통받는 교회 돕기

검색

